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19)



야굽 디야가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아이 케넌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행하신
일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내어 주시며
먹으라 하시고,

저들이 이를 먹고 난 뒤에 떡을
떼어 무리에게도 주라고 명하시니라.

저들이 명하신 대로 무리에게
전하고 나자, 예수께서 다시 포도주를
내어 마시게 하시고 무리에게도 또한
주라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는
나의 몸을 기억하여 먹는 것이요,
잔을 받아 마신 자는 나의 피를
기억하여 마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
영혼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흠족하리라
하시니라.”(니파이삼서 20:3-5, 8)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구세주께서는 다음
가르침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이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교성 59:9-10)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에 함께
모여, 성찬을 취하고, 그와 맺은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찬 기도문은 주께서 직접 주신
계시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비 플랫처 박사는 “훌륭한
삶”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물문경에 나오는 성찬
기도문을 받은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물문경에 나오는 성찬
기도문에 부닥쳤을 때, 그는 조금도
막힘이 없이 그 구절을 불러
주었으며,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것을
받아 썼습니다. 그는 어떤 말을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대부분의 작가들이 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말을 쓰게 될
때까지 초교니, 재교니 수정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그 신성한 본질에 대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연령과 경력과
배경을 지닌 젊은이가 이처럼

효율적인 성찬 기도문을 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든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만 거룩한 근원에서 나온
영감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하비 플랫처, 훌륭한 삶,
복음 교리반 교재, 1961년)

일요일마다 성찬 기도를 드릴 때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취하며 다음과 같이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약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소서...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마시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해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큰 사랑으로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요한복음 3:16)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이 있음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고통이 해소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기쁘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베냐민 왕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받드는 방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라...”(모사이야서 3:19)

우리는 구속주의 참된 추종자가 될 것을 새롭게 성약하고 회생의 정신을 우리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킬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 네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바치라.”(교성 59:8)

주님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그리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항상”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의미깊은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구세주를 생각하고 그를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성약을 맺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를 대하고 그의 인도를 받을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합니다.(나이 25:26)

“그리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며”

수년 전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한 무리의 개신교 목사들과 함께 메사 성전 관람을 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대대적으로 개축을 한 후에 일반 공개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목사들 중의 한 사람이 힝클리 부대관장님에게 어느 곳에서도 적어도 그에게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죽은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메시지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네 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의미있게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상징이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197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러한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놀라움과 영광을 표현하기에는 어떤 표시나 어떤 예술 작품도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한복음 14:15)는 말씀을 하시면서 상징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추종자로서 천박하고 위선적이며 불친절한 일을 행할 때

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되며 또한 우리는 선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스스로 받드는 분을 상징하는 것을 좀더 밝게 빛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는 나의 몸을 기억하여 먹는 것이요, 잔을 받아 마신 자는 나의 피를 기억하여 마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 영혼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흡족하리라”(니파이삼서 20:8)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기록자인 니파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깊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먹고 마시고 난 연후에 보라 영으로 충만하여진지라.”(9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구세주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성찬식에 올 때 우리는 다음 주 동안 우리를 지켜 줄 주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한 델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이 있음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고통이 해소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취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며 인생의 매일매일의 시련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영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매주...

“이를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합시다.”

송정 전도소 개설

전라남도 송정시에서의 복음 전도는 1986년 10월 27일에 대전 선교부 홍 무광 선교부장의 지휘하에 박 종언 장로, 스티드 장로가 전도의 첫발을 내디딤으로써 시작되었다.

그후 12월 6일에는 홍 무광 선교부장과 8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 선교부장이 송정시 지역을 주님의 복음을 펼칠 땅으로 헌납하였다. 그리고 12월 14일에 송정 전도소 첫번째 성찬식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29명의 회원 및 선교사가 참석하였는데 박 종언 장로가 "시온을 준비함"이라는 주제로



첫번 성찬식에 참석한 성도들



최근(2월 첫주)에 참석하는 성도들

말씀하였으며 초청 연사로 농성 와드의 임 중하 감독이 송정 전도소의 훌륭한 개척과 발전을 격려하는 영감에 찬 말씀을 했다. 현재 송정 전도소에는 매주 15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하나 신앙으로 강하게 뭉쳐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송정 전도소에서 주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연고자에 대한 회원들의 연락이 있기를 바란다.

송정 전도소의 연락처와 선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주소 : 501 전남 송정시 원동 원일맨션 1-101호 (송정 우체국 사서함 118호)

전화 : (062) 92-9437

선교사 : 박 종언 장로, Steed 장로, Nickell 장로, Phillips 장로.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송년 모임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에서 스테이크 내의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형제들이 참석하여 박 내정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송년 모임을 가졌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김경자 자매는 “한 해 동안 신권을 가진 형제님들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들과 윗 어른들을 모시느라 수고하신 자매님들이 어려운 틈을 내어 손수 익혀 두었던 아직 발굴되지 않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오늘 선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송년 모임에서 선보인 재능들은 2부로 나뉘어졌는데 제 1부에서는 사진, 초상화, 수예, 과자 데코레이션, 골동품, 공예품 등 실생활에 활용되는 작품이 전시되었다.

제 2부에서는 재능 발표 순서로 독창, 피아노 연주, 시낭송, 웅변, 무용, 기악 연주 등을 발표하여 참석한 회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말씀하는 김 경자 자매



합주하는 자매들

광주 스테이크 구모라에서 모로나이의 향연

지난 1월 3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구모라에서 모로나이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음악 잔치가 베풀어졌다. 그것은 서울 동 스테이크의 모로나이 중창단과 광주 지역의 구모라 합창단 그리고 청소년 합창단의 합동 발표회로 이루어졌다.

이날 모로나이 중창단은 송 형택 형제의 반주로 자작곡인 “나 본향에 가리라”, “주님의 집”, “고향길” 등 여러 곡과 찬송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등 감미로운 노래로 광주 지역의 성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이어 청소년 합창단이 찬송가 26장 “나오라 시온의 젊은이”, “땅 위의 기쁨”, “본향을 향하네”, “냉면” 등을 불렀을 때 입고 나온 한복과 더불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으며, 구모라 합창단의 “천국 기도” 등 여러 곡은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중창단과 합창단원들은 비전문가들로서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의로 뭉쳐 연습한 결과 참석한 신권 역원과 여러 성도들 그리고 구도자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었다.

청소년 합창단은 방 극만 형제가 지휘를 맡았고 구모라 합창단은 이 남준 형제가 지휘를 맡았다.



청주 스테이크 대회



말씀하고 있는 김 동환 스테이크 부장

청주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청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김 동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49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로 정하여 김 동환 스테이크 부장은 성도들이 87년 한해를 현명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필요 이상 잠자기를 그치라.” 둘째 “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메모 카드에 적어 점검하면서 그날 일은 그날 처리한다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정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힘쓰자” 그러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지식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생활이 될 것을 권고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귀환 선교사인 강 병호 형제와 안 양순 자매가 물몬경에 대한 간증과 한국 교원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복대 와드 최 수영 감독은 야렛의 동생이 주님에게 셀렘산에서 갓 16개의 돌을 내밀며 이 돌을 만지시어 암흑중에 빛을 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이더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몬경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주님께서 이 세대를 위해 준비한 경전임을 간증했다.

대구 스테이크 교회사 퀴즈 대회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1월 24일 오후 3시부터 수성 와드에서 부산 신학 연구원 주최로, 와드/지부 대항 중등부 교회사 퀴즈 대회를 가졌다.

네 개 와드/지부에서 6명씩 출전하여 2명이 한 조가 되어 릴레이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과 불꽃튀는 열전으로 계속되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배운 교회사 과정을 복습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출제 문제도 세미너리 교재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6명으로 구성된 중리 와드팀이 800점 만점에 490점을 기록하여 대회에서 최고 득점의 영예를 안았다. 100여명의 역원 및 청소년들이 방청석을 메웠으며 중리 와드의 익살스러운 플래카드와 응원가는 좌중을 웃음으로 꽃피웠다. 방청객을 위한 문제도 마련되어, 참여자 전원이 호응을 가다듬는 시간도 있었다. 교사와 반원이 일치하여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대회 진행을 위해 부산 신학 연구원에서 민 혜기 원장과 이 순철 교수 그리고 장 미경 자매가 도움을 주었다.

참석한 회원들은 주님의 영을 지니고 삶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가르침의 도구인 경전을 연구해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꼈다.

다음은 입상순위이다.

- 1 위 : 중리 와드
- 2 위 : 수성 와드
- 3 위 : 포항 지부
- 4 위 : 대명 와드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72기 수료

다니며 만민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72기
(1986년 11월 17일~21일)를
수료한 13명의 선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지명받은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열망하여 합당한
절차를 거쳐 선교사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국 선교사
훈련원에서 복음 선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배운 후 각기
임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팔호 안은 출신 와드/지부의
이름이다.

- 다음 -
구 본훈 장로(도봉 와드) - 부산
선교부
김 순분 자매(연산 지부) - 대전
선교부
강 원구 장로(수정 와드) - 서울
선교부
이 상훈 장로(마포 와드) - 대전
선교부
김 현수 장로(청주 지부) - 대전
선교부
한 미선 자매(혜화 와드) - 부산
선교부

임 일환 장로(중앙 와드) - 서울
선교부
박 찬원 장로(경주 지부) - 서울
선교부
신 영태 장로(강릉 지부) - 대전
선교부
조 기준 장로(화양 와드) - 대전
선교부
최종순 자매(진주 와드) - 서울
선교부
김 인희 장로(부평 와드) - 서울
선교부
김 숙희 자매(화곡 와드) - 서울
선교부



1987년 - 참여의 해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 2보좌인 조지 아이 캐넌 회장이 1월에 개최된 아시아 지역 훈련 모임에서 행한 말씀에서 발췌)

우리는 12월에 여러 날 동안 아시아 지역 회장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감과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회장단으로서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지시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1987년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시아 지역에 훌륭한 지도자들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의 토론, 숙의 및 기도를 끝마치려 할 때 사랑하는 브래드포드 회장님이 “찰판에 ‘1987년은 참여의 해’라고 쓰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아시아 지역을 위해 우리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슴속에 사람들의 생활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새로운 개종자가 신앙과 간증 가운데 발전하는 것을 보고,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고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알게 해주며, 우리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감싸 주고자 하는 큰 소망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5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태버내클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리나 교회의 기본 조직을 향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완전하며 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개인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현명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걸음의 폭을 넓히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켜 전세계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좀더 신속하고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나는 87세의 고령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의 위대한 대관장이며 예언자이신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을 볼 때 66세의 내 나이는 참으로 젊게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도와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변경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현명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책임을 나누게 하여 축복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1987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회원들을 모아 봉사하도록 부를 때 여러분 스테이크에서 참여도가 증가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좀더 많은 사람이 축복받게 되며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18편 13~15절에 나와 있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고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형제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